



행복한 아이들의 성장 레시피

▶ 발행인 : 교장 오 향 주
▶ 주 관 : 교감 조 민 숙
▶ 편집인 : 교사 이 미 화
▶ 펴낸곳 : 행안 초등학교

• 579-830 전북 부안군 행안면 월륜길 18 • 연구실 584-1205 • <http://www.ha.es.kr>

2015년 제 2호

발행일 2015. 4. 30.(목)

1학년! 친구와 즐겁게 놀며 함께 3음(배움, 나눔, 키움) 프로젝트



한글과 숫자의 배움, 친구들과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눔,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4월에는 1학년 친구들의 본격적인 한글공부와 숫자공부,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배움이 시작되었다. 한글 공부는 '기억 나쁜 디글 송' 노래 배우기, 짝과 함께 몸으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드는 활동, 자음자 책 만들기 활동, 날자 카드를 이용하여 짝과 함께 받침이 없는 글자를 만드는 활동을 함께 했다. 숫자 공부는 1-9까지의 수를 알아보고, 순서수 알아보기,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순서수를 공부한 후, '우리 집에 왜 왔니?, 내가 생각한 수는 무엇일까?' 놀이를 통하여 배운 것들을 놀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4월 21일 화요일에는 '친구와 도란도란 함께 봄을 느껴요' 교실 밖 체험수업으로 임실 치즈마을에 갔다. 따뜻한 봄날 친구들과 함께 치즈 만들기, 피자 만들기, 경운기 타기, 풀썰매 타기, 뽕튀기 먹기 체험을 하였다. 또, 소달구지 타기, 토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통하여, 동물과의 교감으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웠다. 앞으로도 3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꽃보다 예쁜 2학년의 오감만족 프로젝트 '봄이 왔나봄'

4월, 봄을 맞이하여 '봄이 왔나봄' 오감만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번덕쟁이 봄 날씨에 대해 알아보고, 봄의 소리를 떠올리며 '봄비' 노래도 불러 보았다. 알록달록 꽃이 피어날 때에는 학교 뜰의 봄꽃을 관찰하였다. 자세히 그리기와 식물이름 지어 주기를 하며 식물 친구를 만들었다. 노오란 민들레와 개나리는 종이를 접어 교실도 꾸며 주었다. 날씨가 화창해지자 교실밖 체험 수업 계획을 세웠다. 비눗방울놀이, 연날리기, 자전거타기를 하기로 했다. 드디어 4월 22일, 출포생태공원으로 출발~. 갯벌에 사는 식물 관찰하기, 탁본체험, 3색 소금 만들기, 비눗방울 날리기 등을 즐겁게 하며 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연은 못 날려 봤지만 학교에 돌아와서 함께 날려 보기로 약속했다. 다음번에는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오는 내내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



봄, 시, 그리고 사랑스런 3학년 벚꽃송이들

'봄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벚꽃 앤딩의 가사처럼 우리 학교 구석구석에서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에 흥뻑 취해 보고자 아이들과 함께 '벚꽃'을 주제로 시화 그리기 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봄과 벚꽃에 대해 교실 안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느낌 그대로 한편의 시를 써보는 활동을 해 보았다. 이어서 미술 시간에 자신의 시를 멋있게 꾸며 줄 시화그리기 활동을 마친 뒤 벚꽃이 활짝 핀 학교 등갓길에서 봄을 만나 보았다.

간간히 불어오는 봄바람에 눈처럼 내리는 꽃잎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장난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봄, 벚꽃, 그리고 사랑스런 우리 23명의 벚꽃송이들.



우리들의 사춘기(四春記) = 四(4학년) 春(봄날의) 記(기록)

‘도시 개발 1개월 계획’ 프로젝트의 끝은 전주 한옥마을과 객사로 떠난 ‘교실 밖 체험수업’이었다. 출발 전 한옥마을의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3가지) 뽑기를 했다. 뽑은 것을 미션지에 붙여 체험수업 당일 지도를 들고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각자 다른 미션을 수행했다. 한옥마을에 대해 ‘관광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먹거리가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자 찍어온 사진과 체험거리를 공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봄 날씨에 힘입어 학급 동아리 ‘녹색꾸러기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오감만족 자연놀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학교 텃밭에 작물을 심었다. 학급회에서 결정한 대로 감자를 먼저 심었고, 피망·토마토·수박도 심을 예정이다. 또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북극곰아’ 유적비디오를 만들었다. 예쁜 가사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그림까지, 노래를 곱씹어 볼수록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는 시간이었다. 또 매일 종이정원에 물을 주며 종이를 뚫고 나울 씨앗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봄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로 ‘도란도란, 맛있게 친해지자’ 이벤트에 참여했다. 다 적지 못해 아쉬운 우리들의 사춘기는 1년 내내 언제나 봄처럼 흥겨울 예정입니다!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이 공개됩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5학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1주기를 맞아 그날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기억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했다.

세월호 사건 추모 영상을 함께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해 토론도 해 보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 또한 영상시청 및 토론 활동을 통해 갖게 된 생각을 간단한 리치 픽처(설명이 있는 그림)를 통해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여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모아진 의견이 추모노래를 리코더로 연습해 연주하고, 추모시 작성 및 노란 리본을 제작하기로 했다. 위 실천사항을 2주 동안 학습을 통해 준비해서 제작한 결과물(동영상)을 학급홈페이지에 올렸다.

단순히 1-2시간 활동을 통해 할 수도 있었지만, 국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활동을 통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단순하게 알고 있던 사건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 - 6학년 뉴스 제작 프로젝트를 마치며 -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라는 매체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 배운 뒤 우리 주변의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해 관찰하며 각자의 관점을 세우는 활동을 해 보았다. 그리고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하고 편집하여 한 편의 뉴스로 제작하였다. 한 달 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 뉴스 상영회를 가졌다. 아래는 소감발표회에서 나온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이다.

프로듀서 종대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뉴스 발표에서 인터뷰 녹음 자료가 재미있었다. 그리고 간판 문제를 주제로 뉴스를 제작한 3모듬의 인터뷰 영상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우리 뉴스는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기자 주영 : 게임 중독에 대한 뉴스를 제작한 1모듬이 선생님과 서연이를 캐스팅해서 재미있었다. 게임 중독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나는 기자 역할을 했다. 인터뷰를 할 때 좀 떨려서 말을 더듬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초보 기자들을 응원해 주고 싶다.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아나운서 윤희 : 2모듬은 학생들의 인터뷰 녹음 자료를 듣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아나운서를 맡았는데 평소 뉴스에 나오는 멋진 아나운서를 따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